

공간과 관계의 미학... 리암 길릭 신작 내년 광주 전시

뉴욕을 중심으로 활동중인 영국 출신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리암 길릭(Liam Gilic·55)이 내년 대규모 광주 기획전을 앞두고 전시장인 광주시립미술관을 찾았다. 리암 길릭은 광주비엔날레가 열리는 내년 9월부터 미술관 내 전시장과 로비 중외공인 야외 공간 등을 폭넓게 활용해 다양한 작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작은 5개월, 야외 전시작은 3년간 관람객들을 만나게 된다. 그는 "광주에서는 기존 작품을 전시하지는 않을 것"이며 "이번 리서치와 전시 공간 구조, 재해석한 경험 등을 토대로 한 신작만을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22일 미술관에서 만난 그는 마침 전시장을 방문한 청소년들의 관람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하는 등 관심을 보였다. 서울 리움미술관에서 전시회를 갖는 등 지난 12년 동안 한국을 종종 방문했지만 광주는 처음인 그는 전날 걸었던 용봉동 골목길 등이 무척 인상적이었다고 말했다.

"한국의 미술관과 박물관은 그 자체로 독특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 흥미롭다. 광주시립미술관도 마찬가지다. 특히 미술관 밖의 환경에 관심이 많다. 광주는 비엔날레가 열리는 의미있는 도시고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는 도시라는 생각이 든다. 전시는 혼자 만들어 내는 게 아니라 팀으로 하는 건데 미술관의 좋은 큐레이터들을 만난 것 같다. 한계를 넘어 창

의적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이끌어내는 데는 예술 전문가 뿐 아니라 미술관을 찾은 다양한 연령대 커뮤니티와의 소통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오늘 전시관을 찾은 학생들과의 만남은 흥미로웠다."

데미인 허스트 등과 함께 영국 현대미술 대표 그룹 'YBM' 멤버로 활동해온 그는 2009년 베니스비엔날레 독일관 대표 작가로 선정돼 비엔날레 역사상 최초로 타국 국가관을 대표하는 외국인 작가가 됐다. 또 파리 팔레 드 도쿄, 스위스 취리히 쿤스트 할레 등에서 개인전을 열었으며 뉴욕 모마, 구겐하

하는 게 특징이다. 또 작품과의 자유로운 만남을 강조하는 그는 전시장 뿐 아니라 공방, 호텔 로비, 사무실 등에서도 다양한 설치 프로젝트를 진행해 왔다. 한국에서는 삼성 리움미술관에 상설전시중인 '일련의 의도된 전개'로 많이 알려져 있다. 화려하고 다채로운 색상의 조합이 인상적인 작품이다.

이번 미술관 방문에서도 그는 "공간"을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동선' 등을 통해 관람객들이 어떻게 작품 속으로 들어오게 될 것인가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였다.

"작품을 통한 공간 변화에 관심이 많다. 단순히 야외에 구조물을 만드는 것은 의미가 없다. 오늘 소풍 온 학생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거닐고 작품을 관람하는 것처럼 관람객들이 전시장으로 유입되고 이동하면서 느끼는 새로운 반응과 관계 자체가 작품일 수도 있다.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는 '워라벨'은 요즘의 생활 양식으로 자리잡았는데 나의 관심사항 중 하나다. 수많은 건물, 건축 등을 보면서 아이디어를 얻고 사람들의 새로운 행동 양태 등을 살펴보는 것도 작품의 중요 소재가 된다. 다양한 형태의 변화와 갈등을 겪게 되면서 얻게 되는 것들을 녹여내 작품을 만들 계획이다. 나는 그 도시를 대표하는 유명한 건물보다 비공식적인 건물, 일상생활이 녹아 있고, 그곳에서 휴머니티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장소들에 관심이 많다. 도시가 발전해가는 '방향성'에 대해서도 질문을 던져보려 한다."

리암 길릭 초대전을 주도한 전승보 광주시립미술관장은 20여년전 리버풀에서 만난 그의 작품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고 말했다. 폐허로 변해버린 리버풀의 낡은 건물들이 리암 길릭이 전시한, 몇개의 색으로 이루어진 설치 작품의 영향으로 리듬감을 만들어내고 공간 자체가 변화하는 '힘'을 느끼게 했다.

전 관장은 "리암 길릭전은 우리 시대 현대미술의 최신 흐름을 만날 수 있는 기회로 동시대 담론을 만들어내는 현상이 될 것"이라며 "비엔날레와 미술관의 시너지 효과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영국출신 설치미술가... 대규모 기획전 준비차 광주 방문

"휴머니티 발견할 수 있는 일상공간 관심 작품에 녹여낼 것"

임, 데이트 미술관 등에 작품이 소장돼 있다.

순수미술, 디자인, 출판, 영화, 전시 기획 등 전 세계에서 다양한 예술활동을 펼치고 있는 그는 작품과 관람자의 관계, 인간과 사회 환경, 삶과 예술 작품, 일상과 건축물, 사물간의 관계를 폭넓게 다루는 작가다. 그가 중요시 여기는 것은 '공간'과 '관계'로 상호교류와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을 만들어 관객과 작품의 교류를 모색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설치된 리암 길릭의 작품 ▶서울 삼성리움미술관에서 상설 전시중인 '일련의 의도된 전개'



'창작자의 방'이 열린다 11월30일까지 ACC 문화상품 디자인 공모 작품 전시

2019 ACC 신규 문화상품 쇼케이스 '창작자의 방'이 열린다.

이번 쇼케이스(22일~11월 30일)는 ACC 문화상품 디자인 공모에서 대상(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을 수상한 김대천의 ACC의 건축물을 오선지에 펼쳐놓은 그래픽 'ACC Motive'와 최우수상을 수상한 김유림의 아시아의 동물로 별자리를 표현한 '아시아의 밤빛' 등이 전시된다.

국립아시아문화전당(전당장 직무대리 이진식)과 아시아문화원(원장 이기표)은 2019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 '아시아문화주간'에 올해 문화상품 개발 결과 전시인 '창작자의 방'을 개최한다. 민주평화교류원에서 진행되는 이번 '창작자의 방'은 'ACC_R 문화상품'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디자이너 3인과 '제2회 ACC 문화상품

디자인 공모' 수상자 18명·팀이 개발한 참신한 작품을 소개하는 자리다.

'ACC_R 문화상품'에 참여한 디자이너는 국제 공모에 선정된 홍주희(한국), 계정권(캐나다), 서수진(한국) 세 명이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 디자이너는 관심사와 미션에 따라 ACC의 아시아문화자원(서적, 이미지, 연구자료 등)을 활용

해 작업을 진행했다.

홍주희 작가는 '아시아의 길상문양', 계정권 작가는 '광주 상징 문양', 서수진 작가는 '한-아세안 국가의 국화'를 주제로 입주기간 동안 각각 3종의 그래픽을 개발했다. 작가들의 그래픽 패턴을 상품에 적용한 스카프, 휴대폰케이스, 우산, 패브릭포스터, 자수키링, 로브, 유리컵 등 총 8종 37개 품목



김대천 작 'ACC Motive'

이 이번에 전시된다.

우수상은 민경희, 위장욱 2인이며 장려상은 윤주형, 필립 사케(독일), 양지(미국), 조은혜의 4인이 선정됐으며 입선은 유효진, 위연복, 원종문, 이경하, 서말하 등 8인이 차지했다. 최종 선정된 수상자는 3개국 8개 지역에서 응모한 프리랜서, 작가, 대학생, 강사, 디자이너, 회사원 등이다. 이들은 패브릭포스터, 스카프, 데스크 매트, 2020년 달력 및 반려동물용품 등 색다른 품목을 선보인다.

특히 이번 쇼케이스에서는 작업실과 소품 형태의 공간에서 작가들의 작업과정과 작품 스토리텔링을 살펴볼 수 있으며, 관람자가 제품을 만지고 체험할 수 있게 했다. ACC는 수요조사를 토대로 본격적인 상품 제작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요조사 참여 관람객에게는 ACC 문화상품점 할인권이 증정되며 공모 수상작을 활용한 일부상품은 인스타그램을 통한 온라인 판매가 진행된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연극 있다 있다

'박정자의 연극 talk talk'

25~26일 씨어터연바람

연극인 박정자(사진) 배우가 25일 오후 7시 30분, 26일 오후 4시 동구 동명동 소극장 씨어터연바람에서 토코 콘서트 '박정자의 연극 talk talk'를 연다.



이번 콘서트는 씨어터연바람이 주최하는 소극장 연극축제 '제3회 연극 있다-있다 페스티벌' 중 전국 5개 극단이 선보이는 연극 프로그램 '오색빛깔, 오색마당'으로 마련된 자리다.

이날 박 배우는 1962년 연극 '페드라'를 시작으로 '대머리 여가수' 등 140여편이 넘는 연극에 출연하며 연극계에서 자리를 잡기까지의 삶을 들여다보는 모노드라마를 선보인다.

이밖에도 '오색빛깔, 오색마당' 프로그램에서는 삶과 죽음의 의미를 깨닫는 여정을 심리적인 이미지로 구축한 23일 시나위(부산)의 '뿔' (11월 1-2일), 노희경 작가의 동명 드라마 작품을 극으로 만든 극단 놀풍(청주)의 '엄마의 치자꽃' (11월 8-9일) 등을 공연하며, 푸른연극마을의 2인극 '옥주'도 11월 22-30일 만나볼 수 있다.

입장료 2만원. 인터넷으로 사전예매하면 20% 할인된 가격으로 티켓을 구할 수 있으며 커피 무료 이용권, 꽃바구니, 식사권, 연극 있다-있다 굿즈 등을 받을 수 있다.

/유연재 기자 yjyou@

'GB 작가스튜디오 탐방'

23일 우제길 화백 작업실

(재)광주비엔날레는 지역 밀착형 정기프로그램 '월례회'의 일환인 'GB 작가스튜디오 탐방'을 23일 오후 6시 우제길(사진) 화백의 작업실에서 진행한다. 이날 사전 신청한 지역 작가 및 관객, 광주비엔날레 관계자 등은 우제길 화백의 예술세계와 작품관에 대해 소통할 계획이다.



우 화백은 빛의 비구상적인 이미지를 활용해 회화와 조각, 영상 등 다양한 실험을 통한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우 화백은 1987년 국립현대미술관 '이달의 작가전', 1995년 제1회 광주비엔날레 인기작가상 수상, 2009년 한국미술평론가 협회가 주관 '한국현대미술가 100인'에 선정됐으며 2018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인초대전 '우제길의 빛' 전 등을 열었다. 참여를 원하는 관객은 광주비엔날레 홈페이지를 통해 23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SINCE 1982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를 보세요”**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2015~2019 대한민국 소비자대상 소비자브랜드부문 [5년 연속] 수상
2016 미국 라스베이거스 CES 무선 액세서리 [혁신기술상] 수상
2017 미국 빅 이노베이션 어워드 (BIG Innovation Award) [혁신상품부문] 수상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소상공인 공동브랜드 k.tag 전국100개 인증업체선정

광주전남 기능장 호 **국무총리상 표창**
보건복지부 장관상 표창
광주광역시 시장상 표창 **광주남구 청장상 표창**

大山 프리모 남녀 가발

특수가발 별매(원터치) 테잎 X 핀 X
기능장이 직접 37년 시술 1만명 이상 내공
H.M사 동급제품 130만원 **59만원**~

062 673 5858 (모발모발) **매주 화요일 휴무**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아파트 상가2층(대광여고 옆) **일요일 정상 영업**